

**김진언 (SINN)****학력**

- 2004 UdK (Universitaet der Kuenste Berlin)베를린 예술대학 조형예술학과  
 마이스터 (석사)졸업 베를린, 독일
- 2002 UdK (Universitaet der Kuenste Berlin)베를린 예술대학 조형예술학과  
 압솔벤트(학사)졸업 베를린, 독일
- 199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학사 졸업 서울,한국

**개인전 (selected)**

- 2022 A Theory Of Our Time, Förderverein Alte Bürger e. V. 브레머 하펜, 독일
- 2022 흐르는 공간, 관훈갤러리, 서울, 한국
- 2016 It Starts From A Scratch, From A Scratch It Start, NON Berlin, 베를린, 독일
- 2016 Middle Of The Tramontana, FN Artspace, 서울, 한국
- 2014 Tsching Wumm Patsch !! 관훈갤러리, 서울, 한국
- 2012 Daily Fairytale, YK gallery,수원,한국
- 2011 M & M, Gallery 2,서울,한국
- 2010 Romantic story, Art Place Berlin, 베를린, 독일
- 2009 Endless Story, Gallery T40,뒤셀도르프,독일
- 2008 Sinn, Art Center Berlin, 베를린,독일
- 2007 In Between, Gallery T40, 뒤셀도르프,독일
- 2006 Imagination becomes Reality, HENRIKE HÖHN Gallery, 베를린, 독일
- 2005 You and Me in Paradise, HENRIKE HÖHN Gallery, 베를린, 독일
- 2005 Art Frankfurt: New & Upcoming, HENRIKE HÖHN Gallery, 프랑크푸르트, 독일  
 외 다수

**단체전 (selected)**

- 2021 Phönix (비디오 설치 작업과 음악 공연 협업 프로젝트),  
 Deutsche Oper Berlin „ Tischlerei “, 도이체 오페라 베를린 (티실러라이-소극장) 베를린,  
 독일  
 SPACE, AHGB, 베를린, 독일
- 2019 Small is Beautiful, Flowers Gallery, 런던, 영국  
 Superposition, (2 인전- Tim Lewis), 협업전시, 관훈갤러리, 한국
- 2018 Small is Beautiful, Flowers Gallery, 런던, 영국  
 Permeable Mauer, Ortstermin, 베를린, 독일  
 Arts-space Space-art, Förderverein Alte Bürger e. V. 브레머 하펜, 독일

- 2017 Small is Beautiful, Flowers Gallery, 런던, 영국
- 2016 Noord Korea Zuid, ArtLand, 란드그라프, 네덜란드  
Korea Blue Wave, Red Dot Museum, 에센, 독일
- 2015 Co La Bor, NON Berlin, 베를린, 독일
- 2014 Sky mechanic, (비디오 설치 작업과 음악 공연전시 Symphonic Percussion Berlin 협업 프로젝트)  
Watergate (RBB Klassik Lounge), 베를린, 독일
- 2013 NORDART 2013, (Wolfgang Gramm 협업 설치작업) Kunstwerk Carlshuette, 렌츠부르크, 독일  
Contemporary Art Ruhr, Stiftung Zollverein, 에센, 독일  
I am who I am, Infantellina Contemporary, 베를린, 독일  
형형색색, 키텍스, 일산, 한국
- 2012 Korean Ride, Artstation Gallery, 텔아비브, 이스라엘  
NORDART 2012, Kunstwerk Carlshuette, 렌츠부르크, 독일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2012, GS Caltex 예울마루, 여수, 한국  
한국현대 미술의 현황과 전망,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 2010 I am who I am, Infantellina Contemporary, 베를린, 독일
- 2008 Great Seven, White Square Gallery, 라스베가스, 미국
- 2005 Deep Action, George Kolbe Museum, 베를린, 독일 외 다수

## 레지던시

- 2012-2013 Symposium of Kunstwerk Carlshuette, 렌츠부르크, 독일
- 2011-2012, 서울 시립미술관 난지아트스튜디오 6기 입주작가, 서울 대한민국
- 2005-2006 BBK(Atelier Förderung) 스튜디오 지원 작가, 베를린, 독일

## 수상

- 2013 NORDART 대상, (Wolfgang Gramm 협업 설치작업) Kunstwerk Carlshuette, 렌츠부르크, 독일
- 2012 NORDART 퍼블릭 상, Kunstwerk Carlshuette, 렌츠부르크, 독일
- 2009 POSCO Steel Art Award, 본선상, 포스코 미술관, 서울, 한국
- 1999 New Frontier Art Award, 특선상, 서울, 한국

## 소장 (selected)

- ACO (독일), 애경(한국), JAB (독일), SOER (독일),  
Medical center Buch Berlin (독일), AP-Lack & Korosserie Zentrum (독일)

Rega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 Laboratorz of Virologz and Chemotherapy (벨기에), MOOZ GmbH (독일) 외

## 작가노트

고딕성당의 장엄하고 어두운 공간위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투영되고 반사되는 빛과 색. 이 감동으로 부터 나의 작업은 시작되었다. 어린시절 색색의 크레파스로 칠하고 검은 색으로 덮은 후에 날카롭게 어둠을 긁어내면 뚫고 나오는 환하고 밝은 색이 안겨주는 흥분과 기대, 어째면 지금도 내가 번번히 같고 긁어대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쾌감과 다르지 않은 듯하다. 특히 금속의 표면위에 굽혀 각도와 깊이 차이에 의해 반사되고, 왜곡되어지는 형상들은 오늘 거대도시 빌딩숲의 건물 표면위에 비취지고 투영되는 우리들 삶의 이야기와 생각들을 세겨 담아내기에 어울린다.

### From An Unknown Island\_The Gateway1, 2

#### 미지의 섬으로 부터\_통로 1, 2

몇 년 동안 작곡가와 나는 사운드와 시각적 영감을 수집하고 프로젝트 작업을 하기 위해 지중해의 작은 섬을 방문했다. 그곳에서의 자연에 대한 경험과 상상들을 바탕으로 Secret Garden, Unkown Island 라는 제목의 음악과 시각 예술 팝업 CD 북 그리고, 비디오 작업과 라이브 콘서트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1 월 도이취 오페라 베를린의 소극장 티실러라이 에서 Secret Garden, Unkown Island 중에서 Phoenix 를 테마로 공연을 했고, 작품 „미지의 섬으로 부터\_통로 1 과 통로 2“ 들은 테마 Phoenix 의 스크레치 회화중 2 점이다.

빛이 없이는 소통하고 반사되어 비취지지 않는 한 소녀의 혼자만의 달 같은 시공간 위에 다른 시공간의 문이 열리고,

그 밖으로 보이는 정원, 새를 피어내는 꽃에서 자라난 새가 소녀의 공간으로 날아든다.

그리고, 새는 자신이 사는 정원으로 소녀를 초대한다.

테마 Phoenix 는 작은 꽃씨에서 불꽃같은 빛으로 자라 재가 되고, 그 재에서 다시 깨어나 날아오르는 자연의 순환하는 시간과 공간의 힘을 상징하는 새 그리고, 한 소녀 ( 작품제목:미지의 섬으로 부터\_통로 2 의 엠브리오 같은 소녀의 그림자 = 보잘것 없이 느껴질 수도 있는 작은 존재) 의 함께하는 여정을 내용으로 한다.

„ An Imagination About Apple \_사과에 대한 상상“

-창세기 이야기 속 아담과 이브의 사과는 인류가 신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류 역사 자체를 쓰는 출발점이다.

-세잔의 사과는 단순한 시각적 형태를 넘어 추상적이고 수학적 개념의 근본적인 미학을 성찰할 수 있는 예술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 백설공주의 '사과'도 왕자와의 만남과 해피엔딩에 한 몫 했다.

- 아이작 뉴턴의 중력에 관한 의문을 탄생시킨 사과 등...

내일 지구가 멸망 하더라도 오늘은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바루흐 드 스피노자

사과는 수많은 휴먼 스토리에서 가능성의 중요한 모티브 이자 전환점이었다.

그것에 대한 나의 상상을 표현하고 싶었다.

„ Serendipity    행복한 우연“

공간은 사물들 사이의 관계 구조일 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 개념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부터 파생된 나의 상상들을 여섯 방향으로 열리는 육각형으로 표현해 본다.

2 차원의 평면위에 그려진 3 차원의 육면체가 여섯 방향으로 열어낸 공간에 있는 이야기들이 연관되고, 성장하고, 확장 되면서 또 다른 조형적 형태를 형성한다. 이 얼마나 행복한 우연인가...